

## 코르테스의 통역사, 말린체: '민족의 반역자'인가 '건국의 어머니'인가?\*

김윤경  
단독/서울대학교

Kim, Yoon Kyung (2010), Malinche, la intérprete de Cortés: ¿Una traidora nacional o la madre fundadora de una nación?

**Abstract** Este artículo trata de la Malinche, quien es una mujer de las más importantes en la Conquista del imperio Azteca. La evaluación predominante es negativa. Aunque ella simboliza el origen de 'la traidora' o 'la chingada', Malinche se estima positivamente como 'la fundadora de la nación' por las autoras chicanas en los estudios recientemente realizados. Tal estimación tiene que ver con el nacionalismo. Cortés usó a la Malinche como intérprete, instrumento de la conquista. Malinche no sólo tradujo nahuatl al español, sino que proporcionó las informaciones de la sociedad indígena a Cortés. Entonces, a diferencia de otros indígenas, Malinche no podía tener la oportunidad de adquirir y consolidar la identidad nacional tan tajantemente. Cuando Cortés llegó a México, ella estaba cursando una situación dura y hostil como esclava. Malinche comprendió que el rol de intérprete de Cortés serviría como una oportunidad para mejorar su destino; por eso, intentó vivir activamente empeñándose en su papel con todo su esfuerzo. Ahora la Malinche debe interpretarse como un personaje histórico en lugar de uno mítico, y reconocerse como una mujer indígena quien vivió con mucha fuerza durante un período complejo.

**Key words** Malinche, Cortés, Mujer indígena, Chingada, Fundadora  
말린체, 코르테스, 원주민 여성, 겁탈당한 여인, 건국의 어머니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I. 들어가며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유럽의 팽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것은 아메리카가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동전의 양면인 유럽의 팽창과 라틴아메리카의 식민화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한 여성이 있었다. 말린체였다.

멕시코시 소칼로 광장에 있는 옛 대통령궁에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거대한 벽화가 있다. 멕시코 혁명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1920년대에 멕시코에서는 국민주의의 일환으로 벽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주역이었던 디에고 리베라는 고대 원주민문명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멕시코의 전 역사를 대통령궁에다 거대한 벽화로 그려 놓았다. 그림 속에서 말린체는 정복자들과 신부들과 혁명 전사들 사이에 당당하게 끼여 있다. 까만 머리에 원주민 복장을 한 말린체는 작은 아이를 안고 있다. 그 아이는 코르테스와의 사이에 낳은 ‘최초의 메스티소’ 마르틴이다.

말린체는 정복자 코르테스의 통역사이자 정부였다. 통역사로서 말린체는 두 세계가 만났던 지점 한 가운데에 있었다. 말린체의 통역과 원주민 사회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면 유럽인들의 정복의 역사는 어느 정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만큼 말린체는 멕시코 정복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말린체는 17세기 멕시코의 위대한 바로크 시인 소르 후아나 이네스 델 라 크루스(Sor Juana Inés de la Cruz)와 20세기 아르헨티나의 영원한 국모인 에바 페론(Eva Perón)과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의 주목할 만한 여성 10명” 중 한 명으로 꼽힌다.<sup>1)</sup>

‘부재하면서도 항상 현존하는 사람(El personaje ausente siempre presente)’. 이 말은 현재 멕시코에서 말린체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다. 말린체가 멕시코의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멕시코인들

1) James D. Henderson and Linda Roddy Henderson, *Ten Notable Women of Latin America*, Chicago: Nelson-Hall, 1978.

사이에서는 말린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멕시코 역사에서 악인이 한 명 있다면 그는 바로 말린친(Malintzin)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날까지 말린체는 멕시코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말린체는 국민의 “배신자”, “변절자”, “매춘부”를 상징하는 아주 부정적인 인물을 대표하게 되었다. 말린치스타(Malinchistas)라고 하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서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말린체가 애초부터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16세기 정복 당시의 원주민들만 해도 말린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플로렌스 필사본(Florentine Codex)<sup>2)</sup>을 쓴 나우아 원주민 저자들은 말린체를 언급할 때 항상 존경을 표시하는 -tzin을 붙여서 말린친이라고 불렀다. 원주민 저자들은 말린체를 악녀로 그리지 않고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여성으로 그렸다. 리엔소(lienzo)<sup>3)</sup>에 그려진 말린체를 보면 우아한 옷을 입고 머리는 나우아 원주민 기혼여성이 하는 독특한 뿔 모양으로 감아져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멕시코 중부 고지대, 특히 툴락스칼라와 푸에블라의 원주민에게는 말린체가 배신자나 악의 이미지보다는 풍요의 상징인 어머니, 즉 보호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 원주민들은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해주는 원천인 눈 덮인 화산을 말린체라고 부른다.<sup>4)</sup>

이러한 이미지는 정복에 직접 참여하여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해놓은 유럽인들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멕시코 정복 당시 코르테스와 동행했던 베르날 디아스는 자신의 책 『누에바 스페인 정복의 진정한 역사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에서 말린체의 세레명 마리나(Marina)에 존경을 나타내는 도냐(Doña)를 붙여서 도냐 마리나(Doña

2) 이 필사본은 대략 1540-1585년에 베르나르도 데 사아군(Bernardo de Sahagún)의 주관 하에 나우아 원주민 학생들이 나우아어로 쓴 것으로, 스페인 정복 이전 아스텍 사회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3) 천에 그린 그림을 뜻한다.

4) Frances Karttunen, “Rethinking Malinche,” Susan Shroeder, Stephanie Wood, and Robert Haskett eds., *Indian Women of Early Mexico*, Norman and London: Univ. of Oklahoma Pr., 1997, p. 295.



최근에 치카나(Chicana) 연구자들이 멕시코의 역사와 정복 과정에서 말린체가 수행한 역할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면서 말린체의 이미지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치카노들, 특히 치카나들에게 말린체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말린체는 스페인적인 것에 불안정하게 적응했던 인물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말린체의 상황은 바로 치카노들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이었다. 치카노들은 주로 미국사회의 주변부에서 혼혈적인 멕시코의 전통을 갖고 살아간다. 말린체는 치카노들이 얼마나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말린체는 치카노들의 어머니였다.

치카나 연구자들은 말린체를 배신자가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에 희생된 한 여성으로 보았다. 치카나 연구자들에게 말린체는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지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말린체에 대한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해석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치카나들은 말린체가 원주민적인 것과 스페인적인 것으로 대변되는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존재로서,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인 문명 형성의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말린체는 멕시코인의 ‘배신자’가 아니라, 다인종적인 멕시코 건국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말린체에 대한 평가는 필요에 따라 멕시코 민족주의와 페미니즘과 인종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변화해왔다. 본고에서는 말린체에게 덧씌워지고 어찌면 과도하게 씌워진 민족주의의 신화를 벗겨내고, 새로운 문명과 충돌했던 한 시대를 살다간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말린체를 신화로부터 역사로 끌어냄으로써 오랫동안 말린체를 읊어매왔던 여러 가지 굴레를 벗겨내고자 한다. 말린체가 직접 남긴 기록이

위논문, 2004, pp. 144-145; Octavio Paz, *The Labyrinth of Solitude: Life and Thought in Mexico*. trans. by Lysander Kemp, New York: Grove Pr., 1961, p. 81; Carlos Fuentes, *La Muerte de Artemio Cruz*,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62, p. 145.



당시 아스텍 원주민 사회의 제도와 생활양식 등을 통해서 말리날리의 성장과정을 추적해볼 수 있다. 원주민 사회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당시 프란시스코파 신부들의 기록이다. 우선, 원주민사회는 부족공동체(calpulli)로서 철저한 계서제 사회였다. 주요 두 계급은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귀족(pipiltin)과 아스텍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는 평민들(macehualtin)이었다.

그러나 아스텍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는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있었다.<sup>9)</sup> 교육은 아주 어린 나이인 다섯 살에 시작했다. 학교는 상인이나 농민 같은 평민의 아들을 위한 학교, 텔포치카이(Telpochcalli)와 귀족의 아들을 위한 학교 칼메카(Calmecac) 두 종류가 있었다. 남아는 모두 이 두 학교 중에 어느 한 학교에 반드시 다녀야 했다. 교육의 목적은 아스텍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민을 키워내는 것이었다. 두 학교는 모두 복종과 순응이라는 가치를 장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텔포치카이에서는 아스텍제국의 역사와 종교, 음악, 춤, 노래를 가르칠 뿐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법과 벽돌을 만드는 법, 도랑과 운하를 수리하는 법, 학교 토지를 경작하는 법 등 힘겨운 육체노동을 하는 법도 가르쳤다. 반면, 칼메카에서는 엘리트 교육이 이루어졌다. 사제나 군사 지도자, 재판관, 고급 관리를 양성하는 교육이었다. 이 학교는 사원에 부속되어 있었다. 교사 대부분이 고등 교육을 받은 사제였으며, 학교 분위기도 수도원의 분위기를 더 풍겼다. 평민학교의 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는데, 이 귀족학교의 학생은 학교에서 숙식하며 교사의 감독을 받았다. 이 학교 학생은 평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도, 의약, 행정, 법, 천문, 건축, 종교, 수학 등을 더 배웠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아도 남아와 별도의 학교에서 따로 교육

9) 아스텍 사회의 교육에 관한 자료는 Codex Mendoza가 대표적이다. 아스텍 사회의 교육에 관해서는 Warwick Bray, *Every Life of The Aztecs*, New York: Dorset Pr., 1968; David Carrasco and Scott Sessions, *Daily Life of The Aztecs: People of The Sun and Earth*, Westport: Greenwood Pr., 1998. 참조.

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아처럼 모두 학교에 다녔던 것은 아니다. 결혼할 때까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여아도 있었다. 그러나 특히 귀족 가문의 딸은 여학생을 위한 칼메카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학교 건물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선생님은 나이 든 여성 사제였다. 여아가 외출할 때는 항상 유모가 따라 다녔으며, 남아와 말하면 안 되었다. 식사를 할 때도 말없이 먹어야 했고, 낮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침묵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다. 여아에게는 정숙과 예의, 순결, 복종의 가치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도 가르쳤다. 예를 들면, 5살부터 7살까지의 여아는 물레를 자아 실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10대 초반에 이르면 요리를 배우고, 14세에 이르면 옷감 짜는 법을 배웠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말린체가 코르테스의 통역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언어 능력은 말린체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 외에도,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나서 엄격하게 받은 공식교육의 영향이 컸다. 특히 귀족의 딸들이 다녔던 여자 칼메카에서는 남자 칼메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하, 역사, 지리, 신화, 법, 예술 등도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말린체는 여성으로뿐 아니라 능력을 지닌 한 인간, 즉 아스텍 사회의 지리와 역사를 잘 알고, 원주민 사회의 관습에도 정통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엄격하면서도 부유한 귀족가문에서 태어난 말린체에게 비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다른 귀족에게 재가하면서였다. 재가한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는데, 유산상속 문제 때문에 아들을 위해 말린체를 버렸다.<sup>11)</sup> 아스텍 사회에서는 모계 쪽으로 소유권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재산이 말린체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어머니는 재가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말린체를 히칼랑고(Xicalango) 원주민에게 팔아버리고는 죽었다고 헛소문을 퍼뜨

10) Warwick Bray, *Everyday Life of The Aztecs*, p. 59.

11) 베르날 디아스는 이 사실을 말린체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Bernal Díaz del Castillo,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 I, p.123.



렸다. 성대하게 치른 말린체의 장례식 이면에는 비정한 엄마의 헛된 욕심이 숨어 있었다. 사람들이 말린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 말린체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채 히칼랑고로 가고 있었다. 이 일은 말린체의 영혼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비록 당시에 노예나 인신공희의 제물로 어린이들을 파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결국 말린체는 유카탄 반도에 있는 타바스코 지방의 토호(cacique)에게 노예로 팔려갔다. 부유한 나우아 귀족의 딸이 마야 귀족의 노예가 된 것이다.

당시 아스텍 사회에는 노예와 노예 시장이 있었다. 아스텍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노예시장은 아스카포찰코(Azcapotzalco)에 있었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이 아주 발달했다. 이곳을 드나드는 상인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노예 무역을 했다. 노예상들은 이 도시에 건물을 몇 채나 갖고 있었는데, 노예들을 그 건물에 숙식시키면서 노예시장에 내다팔았다. 시장에 내놓은 노예 대부분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전쟁에 패해서 공물로 바쳐진 사람들이거나 상인들이 멕시코만 연안의 도시나 남쪽 테우안테펙에서 사들여온 사람들이었다. 당시 아스텍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유괴해서 노예상인에게 파는 일이 빈번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말린체도 바로 이 노예시장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타바스코 귀족의 손에 넘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 III. 코르테스의 통역사, 말린체

말린체는 그의 짧은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타바스코에서 보냈다. 귀족의 딸로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자랐던 말린체에게 노예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다. 말린체는 매일 주인을 위해 옥수수를 갈고 토르피야를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다. 빈번하게 열리는 온갖 종교 축제에 필요한 특별 음식과 옷을 만드는 일도 노예가 해야 할 일이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말린체에게는 늘 해야 할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타바스코에서 말린체는 다른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했다. 말린체는 나우

아족 출신으로서 나우아어(Nahuatl)를 사용했지만, 타바스코 원주민의 언어는 마야어였기 때문이다. 말린체는 귀족의 딸로 어렸을 때 엄격한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언어적 재능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 덕분에 말린체는 마야어를 배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말린체가 마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후일 말린체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운명의 날은 1519년 3월 말린체가 스무 살이 채 안 된 어느 날 찾아왔다. 코르테스 등 스페인 인들이 탄 낫선 배들이 타바스코 연안의 한 마을인 포톤찬(Potonchan)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전에 이미 스페인인 인들이 이 마을에 와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간 상태여서 촌탈 마야족이 사는 이 마을의 원주민들은 낫선 사람들이 반갑지 않았다. 그래서 타바스코인들은 이 스페인인들에게 대항하려고 서둘러 전사들을 불러 모았다. 코르테스 일행은 화살, 칼, 총 그리고 말을 갖고 있었다. 타바스코인들은 총에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것은 말이었다. 타바스코인들에게 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동물이었다. 반은 사람 같고 반은 괴물 같으면서 키도 사람보다 훨씬 큰 말 앞에서 타바스코 원주민 전사들은 놀라 달아났다.<sup>12)</sup> 타바스코 원주민들은 수적으로는 훨씬 앞섰지만 이들의 강철 검과 총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sup>13)</sup>

타바스코인들이 택한 것은 평화였다. 타바스코인들은 선물로 호의를 표시함으로써 스페인인 인들과 평화를 찾으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선물을 가지고 스페인인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옥수수로 만든 케이크, 그 지역에서 나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와 과일, 금 장신구, 오리, 면화 등 아주 다양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노예였다. 정복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시중을 들어 줄 여자 노예 20명을 따로 선물로 바친 것이다. 적에게 여성

12) James D. Henderson and Linda Roddy Henderson, *Ten Notable Women of Latin America*, Chicago: Nelson-Hall, 1978, p. 6.

13) 타바스코 전사들의 수는 추정컨대 만 명이 좀 넘는 반면 스페인 인들은 300 명가량 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들을 바치는 풍습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오래된 관습이었다. 그것은 원주민이 적에게 취하는 화해와 평화의 제스처였다.

스페인인들은 이 전리품에 적잖이 놀랐다. 당시 코르테스와 동행했던 베르날 디아스는 자신들이 원주민에게서 받은 그 어떤 선물도 이 스무 명의 여성 노예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sup>14)</sup> 이 스무 명의 여성 노예 중에 말린체가 끼여 있었다. 말린체는 이때 정복자들에게 바쳐진 스무 명의 노예 중에서 유일하게 그 이름과 행적을 역사에 남긴 인물이다. 말린체와 코르테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처럼 말린체와 코르테스의 만남은 노예와 정복자의 만남이었다. 지금까지 봐왔던 원주민 남성과는 너무나 다르게 생긴 낮은 남자들 앞에 바쳐진 여성 노예!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낮은 땅에 팔려 와서 살아 온 말린체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말린체에게는 정복자들 앞에 가서도 자세를 꼳꼳하게 하고 정복자들을 똑똑히 쳐다볼 용기가 있었다. 베르날 디아스는 자신의 책에서 말린체의 첫 인상을 “아주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여성”이라고 묘사했다.<sup>15)</sup> 말린체는 스무 명의 노예들 중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르테스가 처음부터 말린체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끼거나 말린체의 능력을 높이 샀던 것은 아니다. 코르테스는 말린체에게 자신의 친한 친구인 알론소 에르난데스 데 푸에르토카레로(Alonso Hernández de Puertocarrero)의 시중을 들도록 했다.<sup>16)</sup> 그리고 초기부터 말린체가 통역했던 것은 아니다. 스페인인 아길라르(Aguilar)가 통역을 담당했다. 일찍이 타바스코 인근 해안에서 배가 난파당해 거기에 정착해 살았던 아길라르는 마야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여성 노예들과 정복자들이 처음 만난 날 아길라르는 이 여성 노예들에게 코르테스를 소개하고 여성 노예 각자가 정복자들 한 명씩

14) Bernal Díaz del Castillo,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 I, p. 119

15) *Ibid.*, p. 123.

16) 나머지 다른 여성 노예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 그 여성노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맡아서 시중들라고 말했다. 다음 날 코르테스가 여성 노예들을 모두 불러 모아 신부 올메도(Olmedo)에게 소개했을 때도 아길라르가 통역했다. 아길라르의 통역으로 여성 노예들은 이 신부로부터 아메리카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 1519년 부활절 1주일 전 일요일이었다. 그때부터 말린체는 도냐 마리나(Doña Marina)라 불렸다. 스페인 인들은 말린체를 부를 때 항상 기독교도 여성이나 원주민 귀족(caciques)의 부인에게 존경의 표시로 붙였던 이 “도냐”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처럼 말린체가 처음부터 코르테스의 눈에 든 것은 아니었지만, 스무 명 중 나머지 여성 노예들과는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린체의 마야어 구사능력 덕분이었다. 말린체는 이후 정복과정에서 코르테스와 계속 동행했다.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은 타바스코지방을 거쳐 아스텍제국 내륙으로 들어갔다. 내륙 지방은 마야 원주민과는 다른 언어, 즉 나우아어를 쓰는 나우아족이 살고 있었다. 나우아어는 바로 말린체가 타고 자란 고향의 언어로서 말린체에게 친숙한 언어였다. 원주민의 말을 말린체가 아길라르에게 마야어로 전했고, 아길라르는 그것을 스페인어로 정복자들에게 전했다. 코르테스는 말린체에게 가능한 한 정직하게 통역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말린체를 보호해주고 좋은 예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말린체는 통역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sup>17)</sup>

코르테스는 원주민 통역사가 정직하게 통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앙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말린체가 특별히 의심을 살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르테스는 이 통역사를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한편 말린체는 자신이 노예에서 벗어날 기회가왔음을 직감했다. 말린체는 코르테스의 통역사 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깨닫고, 통역 일에 기꺼이 나섰다. 말린체는 코르테스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따라다녔다. 통역을 위해서 말린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1519년 부활절에 목테수마의

17) James D. Henderson and Linda Roddy Henderson, *Ten Notable Women of Latin America*, p. 8.

사절로 텐딜레(Tendile)가 코르테스를 만나러 산 후안 데 울루아(San Juan de Ulúa)로 왔을 때도 말린체는 아길라르와 함께 통역했다. 스페인어로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한 것을 아길라르가 말린체에게 마야어로 통역하면 말린체가 그것을 다시 나우아어로 텐딜에게 통역했다.

말린체는 통역만 한 것이 아니라 정복에 유용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했다. 특히 아스텍 제국 내에서 여러 원주민 부족이 목테수마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분열되어 있다는 정보는 코르테스 일행이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말린체는 테노치티틀란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토토낙(Totonac)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금과 인신공희에 바칠 노예 요구 증가 때문에 목테수마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코르테스에게 전해주었다. 말린체는 특히 이 지방 쉼포알라(Cempoala)의 원주민들과 쉽게 친해졌다. 이 토토낙 지방은 멕시코만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첫 지점으로 나우아어를 쓰는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곳 원주민들은 언어가 통하는 말린체에게 목테수마에 대한 불만들을 조목조목 털어놓았다. 말린체는 이것을 그대로 코르테스에게 통역해주었다. 코르테스는 이 사실을 알고 스페인 왕 카를 5세의 이름으로 토토낙 사람들에게 목테수마의 세금 징수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처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목테수마에게 인신공희로 사람을 바치는 것도 금지했다. 토토낙 사람들은 두려우면서도 목테수마에게서 자신들을 보호해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코르테스 일행과 긴밀한 동맹을 맺었다. 코르테스로서는 중요한 원군을 얻은 셈이었다. 테노치티틀란에서 목테수마는 토토낙 사람들의 반란 소식을 듣고 코르테스와 일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목테수마는 곧 전투 계획을 수정하여 코르테스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지켜보기로 했다.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말린체의 존재가 더 중요해졌다. 코르테스 일행 중에 나우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말린체뿐이었기 때문이다. 1519년 여름, 코르테스는 목테수마가 사절단을 통해서 보낸 온갖 금과 은, 귀금속, 옷감 등을 스페인 왕에게 보내기로 했다. 말린체가 시중드는 알론소 에르난데스 데 푸

에르토카레로에게 임무를 맡기고 알론소를 대표로 보냈다. 그러나 말린체는 제외했다. 말린체가 통역사로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같이 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 말린체가 없으면 누구도 원주민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말린체는 단순히 한 남자의 시중을 드는 노예가 아니라 코르테스의 확실한 통역사가 되었다.<sup>18)</sup> 말린체는 코르테스와 한 몸이나 다를 바 없었다. 실제로 원주민들은 코르테스와 말린체를 “말린친”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렀다.<sup>19)</sup>

코르테스가 말린체를 온전히 신뢰하게 된 것은 그 해 여름에 출룰라(Cholula)인들의 음모<sup>20)</sup>를 말린체가 밀고하면서였다. 출룰라는 테노치티틀란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으로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미 여러 원주민 부족이 코르테스와 동맹을 맺은 터라, 목테수마는 출룰라만큼은 코르테스 일행을 무찔러 주기를 바랐다. 출룰라가 패배하면 당장 제국의 수도가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목테수마는 출룰라의 서쪽으로 전사들을 보내 매복하게 했다. 그와 동시에 출룰라의 토호들에게는 스페인 인들에게 환영의 표시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위장전술을 써서 스페인 인들을 패퇴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음모는 금방 발각되었다. 출룰라의 고위 사제 두 명이 말린체에게 매복 사실을 비밀리에 알려주었다. 그리고 출룰라 귀

18) Patricia de Fuentes ed., *The Conquistadors: First-Person Accounts of the Conquest of Mexico*, New York: Orion Pr., 1963, p. 24.

19) Bernal Díaz del Castillo,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 I, pp. 218-219. 디아스는 이것을 “마리나의 대령(Marina's Captain)”에서 “대령”이란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아스텍의 종교적 전통을 생각해볼 때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아스텍의 종교 관행에서는 선택된 인간이 일시적인 신의 구현체 역할을 하면서 인간 세계에서 신 대신에 말하고 행동한다. 아스텍 원주민들은 나우아어로 말하는 말린체를 말린체와 코르테스 뒤에 숨겨진 그 무엇 “대변하는 존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Frances Karttunen, “*Rethinking Malinche*,” p. 294, Susan Schroeder, Stephanie Wood, and Robert Haskett ed., *Indian Women of Early Mexico*, Norman and London: Univ. of Oklahoma, 1997.

20) 출룰라인들의 음모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코르테스가 자신의 정복을 정당화하려고 지어낸 이야기인지를 문제 삼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헌들은 음모가 있었으며, 이 음모가 발각되면서 출룰라인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Ibid.*, p. 304.

족의 부인인 한 원주민 여성이 말린체에게 몰래 와서 스페인 인들과 있으면 위험하게 될 테니까 자기 집에 와 있으면서 자기 아들과 결혼하라고까지 했다.<sup>21)</sup> 말린체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나중에 보자고 하고는 바로 이 사실을 코르테스에게 알렸다. 코르테스는 아스텍 제국과 오랜 갈등 관계에 있었던 틀락스칼라인들<sup>22)</sup>과 동맹을 맺고 출몰라인들을 무찔렀다. 목테수마의 전사들은 허겁지겁 테노치티틀란으로 도망갔다.

출몰라 사건을 계기로 코르테스는 말린체를 더욱 가까이 두게 되었고, 마침내 말린체를 정부로 삼게 되었다. 스페인에 부인을 두고 온 코르테스는 말린체와 비공식적인 결혼관계를 맺은 것이다. 사실 말린체는 마음만 먹으면 코르테스에게서 도망쳐서 출몰라 귀족의 며느리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말린체는 코르테스의 통역사로 남기로 했다. 더 나아가서 그 원주민 귀족 부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원주민의 음모를 코르테스에게 알려 줌으로써 아스텍 제국의 정복에 도움을 주었다. 코르테스와 스페인 인들에게 말린체가 가지고 있었던 호의와 신뢰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 줄 수는 없다.

이 사건은 후일 사람들이 말린체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말린체가 출몰라인의 음모를 ‘이방인’인 코르테스에게 밀고함으로써 동족을 배신하고 스페인인들이 아스텍제국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아스텍 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종족적 정체성 운운하면서 말린체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다. 당시 메소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원

21) Bernal Díaz del Castillo, *Historia Verdadera*, I: pp. 238-248; Anthony Pagden ed. and trans., *Hernán Cortés: Letters from Mexico*, New Haven: Yale Univ. Pr., 1986, pp. 72-76.

22) 코르테스는 틀락스칼라인들이 아스텍제국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기뻐했다. 그러한 불화가 코르테스의 목적, 즉 아스텍제국의 정복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코르테스는 스페인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물게 “분열시킨 다음 정복하라”라는 속담까지 들먹이면서 원주민들의 분열상에 진심으로 즐거워했다. 에르난 코르테스 지음, 앙헬 고메스 엮음, 김원중 역, 『코르테스의 멕시코제국 정복기 1』, 나남, 2009, pp. 117-118.

주민'이라는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스스로를 멕시카인, 틀락스칼라인, 출룰라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sup>23)</sup> 말린체 역시 나우아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원주민'이라는 생각도, 아스텍제국의 신민이라는 생각도 없었다. '원주민'은 유럽인들이 만든 범주이다. 말린체는 아스텍 제국의 '원주민'으로서가 아니라, 마야족에게 노예로 팔려 간 나우아족의 한 여성으로서 행동했던 것이다. 여성 노예 말린체는 코르테스와 그 일행에게서 살아갈 희망, 즉 자유를 보았다. 말린체가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다. 말린체는 원주민의 종교의식 중 하나인 인신공희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말린체는 제단에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는 스페인인의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했다. 스페인인들이 출룰라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인간적인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말린체에게는 출룰라인의 수호신이었던 케찰코아틀이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과, 잘못하면 스페인인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그래서 말린체는 기꺼이 코르테스의 충실한 통역사 역할을 담당했다. 말린체는 늘 코르테스 옆에서 코르테스의 혀가 되어 주었다.

따라서 말린체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씌우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코르테스의 신임을 얻은 말린체가 정복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역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에 가서 목테수마를 만날 때 말린체가 보여준 태도는 매우 흥미롭다. 말린체는 아스텍 제국의 왕 목테수마를 만난 자리에서 목테수마의 눈을 직접 응시하며 코르테스가 말한 것을 나우아어로 통역했다. 아스텍 제국의 남쪽 끝 변방에서 온 일개의 노예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더군다나 아

23) 김윤경, 『멕시코의 “혁명적 인디헤니즘”의 성격』, pp. 97-98; Ida Altman and James Lockhart, eds., *Provinces of Early Mexico: Variants of Spanish American Regional Evolut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 1976, p. 99.

24) Laura Esquivel, *Malinche*, New York: ATRIA Books, 2006, pp. 95-96.



스텍 사회에서 여성은 계급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국가와 종교에 관한 중대사를 논할 자격이 없었다.<sup>25)</sup> 고작해야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틀라토아니 앞에 나아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였다. 결정권은 전적으로 틀라토아니에게 있었다. 그런데 말린체는 테노치티틀란으로 이어지는 독길에 서서 코르테스일행을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틀라토아니(*tlatoani*)<sup>26)</sup>, 목테수마에게 직접 말했다. 말린체의 이러한 행동은 아스텍 사회의 여성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태도였다. 이처럼 말린체가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말린체는 원주민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인의 대변인으로 행동했다. 말린체는 어떤 이유에서이건 자신을 인정해준 스페인 인과 그 문명을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말린체는 코르테스를 비롯한 스페인 인을 위해서 말해야 할 때가 오면 어김없이 그렇게 했다. 틀라스칼라인들이 정복의 역사를 천에 기록해놓은 그림인 리엔소 데 틀라스칼라(*Lienzo de Tlaxcala*)에 보면, 말린체가 방패를 들고 싸우는 모습이 나온다.<sup>27)</sup> 말린체는 종종 스페인 인과 아스텍 원주민의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목테수마를 만난 자리에서도 코르테스를 대신해서 목테수마에게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세우라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테노치티틀란에 있는 한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아스텍 제국의 귀족과 전사에게 스페인 인들이 먹을 음식과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말린체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1521년 무더운 여름날 테노치티틀란이 함락되고 코르테스가 아스텍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면서 말린체는 점점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말린체가 죽기까지 남은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식적인 활동이 별로 없었다. 말린체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말린체는 코르테스의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은 마르틴(Martín)이었다.<sup>28)</sup> 말린체가 코르테스의 아이를

25) Anna Lanyon, *Malinche's Conquest*, Allen & Unwin, 1999, p. 118.

26) 나우아족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한다.

27) Anna Lanyon, *Malinche's Conquest*, p. 130.

28) 마르틴은 코르테스가 인정한 아들이다. 마르틴은 6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스페인으

놓고 나서 둘의 관계는 더 소원해졌다. 1524년 코르테스는 말린체를 온두라스 정복 전쟁에 통역사로 보냈다. 게다가 코르테스는 말린체에게 엔코미엔다를 물려주면서 부하인 후안 데 하라미요(Juan de Jaramillo)와 결혼하게 했다. 그 원정에서 돌아와서 말린체는 하라미요의 딸, 마리아(María)를 낳았다.

코르테스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도 코르테스에게 말린체는 통역사로서의 가치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모양이다. 코르테스는 정복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적 재능이 뛰어난 원주민 여성 말린체를 이용했다. 그래서 말린체를 정부로 두며 한동안 자기 옆에 있게 만들었다. 코르테스가 말린체를 사랑하고 자신의 부인으로 인정했다면 자기의 부하와 결혼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착되면서 말린체의 중요성도 작아지게 되었다. 말린체는 더 이상 코르테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말린체는 죽기 전에 친척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만족한다고 고백했다. 기독교도가 되고 코르테스의 아들을 낳고 하라미요의 정식 부인이 된 것이 행운이라고 말이다. 설사 그 고백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자구책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귀족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힘겹게 살았던 말린체에게 정복자들과 일했던 경험은 새 삶을 사는 것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유럽인들은 의도야 어찌됐든 간에 말린체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까지 해주지 않았는가?

말린체는 코르테스에게 “겉탈당한 여인”이 아니었다. 힘을 가진 자는 코르테스가 분명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동등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린체는 가까이 코르테스의 통역사 역할을 했고 정부가 되었다. 말린체를 “겉탈당한 여인”으로 보는 시각은 말린체를 성적(sexual) 대상으로 보고, 말린체를 도덕적으로 심판한다. 역사적인 기록 어디에도 말린체가 성적으로 문란했음을 보

---

로 건너가 그곳에서 산티아고의 기사가 되었다. 결국 마르틴은 그라나다 전쟁에서 무어족과 싸우다가 생을 마감했다. Mariano G. Somonte, *Doña Marina, “La Malinche”*, México: 1971, p. 169.

여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린체가 성적으로 아주 방종해서 백인 남성에게 겁탈 당했으며, 어머니로서도 정숙하지 못했다는 식의 낙인을 찍고 있다. 따라서 말린체에게 씌워진 잘못된 굴레를 벗겨내고 ‘코르테스의 통역사’라는 지위를 온당하게 부여해야 한다.

#### IV. ‘최초의 메스티소’의 어머니?

그렇다면 말린체가 행운으로 생각했던 마르틴의 출산은 말린체가 생각한 대로 행운이었을까? 말린체는 코르테스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최초의 메스티소’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말린체에게 “겁탈당한 여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건국의 어머니”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게 작용했다.

‘최초의 메스티소’의 어머니 말린체의 이미지는 자연히 메스티소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복 이후 줄곧 부정적인 이미지가 메스티소의 이미지를 지배했다. 이러한 이미지에 따르면, 메스티소는 백인 남성의 강제적인 성폭력 앞에 굴복하여 “겁탈당한” 원주민 여성의 자식들이며, 더 나아가서 유럽세계에 침탈당하고 유럽인들의 지배를 받아온 사람들을 의미했다.<sup>29)</sup>

그러나 멕시코 혁명 이후 메스티소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혁명정부는 메스티소를 통합된 국가의 전형적인 국민상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혁명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으로 부각시켰다. 당시 교육부 장관을 지낸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가 메스티소를 미래 국민문화의 담지자이며 “우주적 인종”이라고 추켜세웠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혁명정부의 지도자들은 “원주민의 육체”와 “백인의 지성”이 생물학적으로 결합하여 원주민의 적자생존의 힘과 백인의 적절한 진보 성향이 조화를 이룬 것이 메스티소라고 극찬하기도 했다.<sup>30)</sup>

29) 김윤경, 『멕시코의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성격』, p. 143.

30) Gonzalo Aguirre Beltrán, “Indigenismo y Mestizaje: Una Polaridad Bio-Cultural,” Cuadernos Americanos 16, 1956, p. 40.

그러나 말린체는 '최초의 메스티소'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말린체가 코르테스의 아이를 낳아서 메스티소의 어머니가 된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초의 메스티소는 코르테스보다 먼저 유카탄 반도에 도착한 곤살로 게레로(Gonzalo Guerrero)가 그곳 마야 원주민 여성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었다. 이들은 역사에서 잊혀져오다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알려지기 시작했다.<sup>31)</sup> 따라서 백인 남성과 원주민 여성의 최초 커플은 곤살로 게레로와 마야 원주민 여성이다.

곤살로 게레로는 유카탄반도에 온 스페인인 정복자였다. 하지만 배가 난파당하는 바람에 게레로는 마야 원주민들의 포로로 붙잡혔다. 나중에 코르테스가 이 사실을 알고 게레로를 구해주려고 했으나 게레로는 스페인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게레로는 그곳에서 마야 원주민 여성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계속 거기에서 살았다. 게레로의 의지는 확고했다. 게레로는 자식들을 무척 사랑하며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즐기고 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곤살로는 원주민처럼 문신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메스티소 자식들을 스페인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sup>32)</sup> 사실 이 아이들이 멕시코의 최초 메스티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게레로가 코르테스보다 앞선 시기에 유카탄 반도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코르테스와 말린체 사이에서 태어난 마르틴이 최초의 메스티소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왜 마르틴을 '최초의 메스티소'로 보고 말린체를 '최초의 메스티소'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일까? 코르테스와 말린체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커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르테스와 말린체를 멕시코 최초의 커플로, 마르틴을 최초의 메스티소로 선정한 데에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1) 대표적인 연구는 Mario Aguirre Rosas, *Gonzálo de Guerrero, Padre del Mestizaje Iberoamericano*, 1975; Eugenio Aguirre, *Gonzálo Guerrero*, 1986 등이다.

32) Sandra Messinger Cypess, " 'Mother' Malinche and Allegories of Gender,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in Mexico," p. 21; Rolando Romero and Amanda Nolacea Harris eds. *Feminism, Nation and Myth: La Malinche*, Houston: Arte Público, 2005.

다. 우선 코르테스를 보면, 코르테스는 아메리카 정복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게다가 코르테스가 처음으로 아들로 인정한 마르틴은 아버지를 따라 스페인으로 가서 기사 작위를 받았다. 더욱이 마르틴은 무어인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코르테스는 메스티소의 형성에서 유럽적인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으며, 마르틴은 유럽적인 것이 지배적인 메스티소임을 보여주기엔 합당한 인물이었다.

말린체는 어떠한가? 우선, 말린체는 유럽인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원주민 여성이다. 그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와는 별개로, 말린체의 통역과 정보 제공이 없었다면 코르테스가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는데 난관이 더 많았을 것이고 시간도 훨씬 더 걸렸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말린체는 유럽인 정복자에게 바쳐진 원주민 여성 노예였다. 정복자와 노예라는 동등할 수 없는 신분에서 코르테스와 말린체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코르테스와 관계를 맺었던 원주민 여성은 말린체만이 아니었다. 코르테스는 목테수마의 세 딸과도 관계를 갖고 그 중 한 명과는 딸까지 두었다.<sup>33)</sup>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원주민 여성과도 관계를 맺어 두 딸을 더 낳았다. 그런데도 말린체가 ‘최초의 메스티소’의 어머니로 주목받는 것은 원주민이면서 노예라는 신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메스티소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에서 유럽적인 것은 우월해서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원주민적인 것은 열등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원주민 노예 말린체는 메스티소의 열등한 원주민 피를 상징하는 데 아주 적합한 인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린체는 생존을 위해서이긴 했지만 유럽적인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던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말린체는 아메리카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여성들 중 한 명이다. 말린체는 코르테스를 만난 다음 날 다른 원주민 여성 노예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말린체는 신부를 신기한 눈으로 바

33) 목테수마는 코르테스에게 자신의 딸과 정략 결혼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스페인에 두고 온 부인과 정식결혼을 한 상태로 결혼은 하지 못한다고 하고 결국 세 딸을 정부로 받아들였다.

라보며 세례를 기꺼운 마음으로 받고 기독교도가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말린체는 스페인어도 익혀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최초의 멕시코 여성이었다.<sup>34)</sup>

독립 후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크리오요들은 여전히 원주민을 ‘열등한 타자’로 생각했으며, ‘우월한 백인’이 중심이 되는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했다.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백인이고 백인의 우월함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백인 대장 코르테스와 원주민 노예 말린체의 관계가 상징적인 커플로 선정되기에 아주 적합했다. 둘의 관계는 원주민 여성을 유럽 백인 남성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문화적으로도 유럽 문화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기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마르틴이 “최초의 메스티소”를 상징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게레로와 마야 원주민 여성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 게레로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생활방식을 더 좋아해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것도 거부했다. 원주민 문화를 즐기고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게레로는 마야 원주민 여성과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에게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게레로의 성향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유럽문화가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시 스페인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유럽적인 것을 중심으로 메스티소적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했던 지배계급의 의도에 맞지 않았다.

## V. 나오며

말린체는 온두라스 정복 전쟁에서 돌아온 후 1527년 혹은 1528년 초에 천연두에 걸려 사망했다. 1519년에 타바스코 해안에서 정복자 코르테스를 만

34) Jesús Figueroa Torres, *Doña Marina: Una India Exemplar. Qunice Cuadros Históricos que son un homenaje a la mujer mexicana*, México: B. Costa Amic, 1975, p. 75.

난 지 10년도 채 안돼서 말린체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말린체가 죽자 남편인 하라미요는 얼마 후 바로 재혼하고 나중에 재산을 말린체와의 사이에 낳은 딸 마리아에게 주지 않고 새 부인에게 주었다. 코르테스도 카를 5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린체를 단지 “원주민 소녀”라고만 표현하면서 두 번 언급했을 뿐이다. 말린체가 코르테스의 아들을 낳고 하라미요의 정식 부인이 된 것에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만큼 유럽인 정복자들에게 말린체는 아무리 아름답고 재능 있고 충성스러워도 정복자들이 열심히 찾았던 금붙이만한 가치도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정복자들에게 말린체는 정복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었다.

하지만 말린체는 달랐다. 정복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말린체를 이용한 것이었지만,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말린체에게 정복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사람이었다. 말린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말린체는 새로운 유럽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도 그 문화에 동화되려고 했다. 코르테스에게 단지 말을 통역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주민 사회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춤틀라 음모 같이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 정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까지 제공한 것을 보면, 말린체가 유럽인에게 걸었던 기대를 짐작해볼 수 있다. 말린체는 코르테스의 노예이자 통역사로서 어쩔 수 없이 정복과정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말린체를 “배신자”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메스티소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건국의 어머니”라고 추켜세워야 하는가? 말린체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마야 원주민 사회의 노예였다. 그러한 말린체에게 정복자들은 희망이었을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두려워했겠는가? 더구나 당시 말린체에게는 다른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이라는 정체성도 아스텍 제국의 신민이라는 의식도 없었다. 말린체 앞에는 단지 한 원주민 여성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자력만으로는 바꾸기

힘든 상황이 놓여 있었을 뿐이다. 그런 만큼 말린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이러한 말린체의 운명이 말린체 한 개인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유럽 제국주의 세력에 이용당하고 그로 인해서 동족에게 경멸당했던 말린체의 운명은 많은 식민지 여성의 운명이기도 했다. 말린체를 비롯한 식민지 여성들은 이 슬픈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운명을 개척해나가려고 했다. 이제 말린체에게서 신화를 벗겨내고 슬픈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 간 한 원주민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화적 존재로서의 말린체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서 말린체를 복원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에르난 코르테스 지음, 양헬 고메스 엮음(2009), 『코르테스의 멕시코제국 정복기 1』, 김원중 옮김, 나남.
- Anthony Pagden(ed.)(1986), *Hernán Cortés: Letters from Mexico*, translated by Anthony Pagden, New Haven: Yale Univ. Pr.
- Anna Lanyon(1999), *Malinche's Conquest*, Allen & Unwin.
- Bernal Díaz del Castillo(1944, 1960),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 México: Editorial Porrúa, S. A.
- Bernardino de Sahagún(1999),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la Nueva España*, México: Editorial Porrúa, décima edición.
- David Carrasco, Scott Sessions(1998), *Daily Life of The Aztecs: People of The Sun and Earth*, Westport: Greenwood Pr.
- Diego Durán(1984), *Historia de las Indias de Nueva España e Islas de la Tierra Firme*, México: Editorial Porrúa, segunda edición, .
- Frances Karttunen(1997), "Rethinking Malinche," in Susan Shcroeder, Stephanie Wood, and Robert Haskett(eds.), *Indian Women of Early Mexico*, Norman and London: Univ. of Oklahoma Pr.
- James D. Henderson, Linda Roddy Henderson(1978), *Ten Notable Women of*



- Latin America*, Chicago: Nelson-Hall.
- James Lockart(ed.)(1993), *We People Here: Nahuatl Accounts of the Conquest of Mexico*, Berkeley: Univ. of California.
- Jesús Figueroa Torres(1975), *Doña Marina: Una India Exemplar. Quince Cuadros Históricos que son un homenaje a la mujer mexicana*, México: B. Costa Amic.
- Laura Esquivel(2006), *Malinche*, New York: ATRIA Books.
- Margo Glantz(Coordinadora)(2001), *La Malinche, sus padres y sus hijos*, México: Taurus.
- Mariano G. Somonte(1971), *Doña Marina, "La Malinche"*, México: Taurus.
- Mario Aguirre Rosas(1975), *Gonzálo de Guerrero, Padre del Mestizaje Iberoamericano*.
- Miguel León Portilla(ed.)(1962), *The Broken Spears: The Aztec Account of the Conquest of Mexico*, Lysander Kemp, trans., Boston.
- Octavio Paz(1961), *The Labyrinth of Solitude: Life and Thought in Mexico*. translated by Lysander Kemp, New York: Grove Pr.
- Patricia de Fuentes(ed.)(1963), *The Conquistadors: First-Person Accounts of the Conquest of Mexico*, New York: Orion Pr.
- Sandra Messinger Cypess(2005), "‘Mother’ Malinche and Allegories of Gender,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in Mexico," in Rolando Romero and Amanda Nolacea Harris(eds.) *Feminism, Nation and Myth: La Malinche*, Houston: Arte Público.
- Stuart B. Schwartz(ed.)(2000), *Victors and Vanquished: Spanish and Nahuatl Views of the Conquest of Mexico*, Boston: Bedford/ST. Martin's.
- Warwick Bray(1968), *Every Life of The Aztecs*, New York: Dorset Pr.

## 김윤경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yella@hanmail.net

논문접수일: 2010년 8월 3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26일

